



자연에 귀 기울여 보는 충남 서천 생태 여행

허준성 | 여행작가

서해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서천은 서해와 금강이 만나는 곳에 있어 다양한 수자원과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다. 봄가을에는 주꾸미와 전어가 관광객을 유혹하고, 여름에는 춘장대 해수욕장이 인기다. 겨울철에는 금강하굿둑 주변으로 철새들의 군무가 매일 이어진다. 자연이 아름다운 서천 여행의 핵심은 국립생태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다. 바다와 대륙, 식물과 동물의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있다. 기후변화 위기에 직면한 요즘, 자연에 귀를 기울여 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세계 생태계를 모두 모아놓은 **국립생태원**

국립생태원은 우리나라와 세계 생태계를 연구하는 환경부 산하기관으로 연구시설 외에 5천여 종의 동식물이 에코리움과 습지생태원, 수생식물원에서 생태계를 이루며 관광객들의 탐험을 기다리고 있다. 국립생태원에서도 가장 핵심은 세계 5대 기후를 재현해 놓은 '에코리움'. 열대관, 사막관, 지중해관, 온대관, 극지관으로 나뉘어 각 기후의 동식물 1,600여 종이 전시되어 있다. 대형 온실 수목원과 아쿠아리움 그리고 동물원이 한자리에 모아 편하게 자연을 보고 배울 수 있게 해준다. 꼼꼼히 빠지지 않고 모두 보려면 사실 온종일 봐도 다 보기 힘들 정도로 규모가 대단하다. 내부에 식당과 카페도 있지만, 날씨가 허락된다면 도시락을 미리 준비해 에코리움 옥상정원에서 먹는 것도 추천한다.

[주소] 충남 서천군 마서면 금강로 1210 [전화] 041-950-5300 [운영] 09:30~18:00(동절기 ~17:00), 월요일 휴무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희리산해송자연휴양림



국립생태원



신성리갈대밭



서천 이하복 고택 전시관

국내 해양생물 자원의 보고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SEED BANK'라 쓰여있는 엄청난 크기의 유리 기둥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국내 해양 생물 표본 5천 점으로 연출한 상징물이다. 어지간한 국내에서 접할 수 있는 해양 생물은 모두 모아놓았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점점 중요해지는 해양생물자원을 수집하고 연구하기 위해 2015년에 개관했다. 자원관 내 씨큐리움관에서 다양한 해양 생물을 관람할 수 있다. 전시관은 4층 1전시실부터 차례로 내려오면서 관람하면 된다. 해조류와 플랑크톤처럼 작은 생물부터 각종 어류와 포유류까지 엄청난 수의 표본이 전시되어 있다. 해양 생물 전시로는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주소]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101번길 75 [전화] 041-950-0600

[운영] 09:00~18:00, 월요일 휴무



TRAVEL TIP

장항스카이워크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바다 쪽으로 조금만 걸으면 장항 송림과 그 위를 걸어볼 수 있는 장항 스카이워크가 있다. 높이는 15m 정도로 키가 큰 해송과 눈높이에 서 어깨를 나란히 걸을 수 있다. 바닷바람을 맞으며 바다 위를 산책하는 동안 해송 솔 향기가 기분을 차분하게 만들어 준다.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높이가 11m 정도라던데 바닥이 흰히 보이는 스카이워크는 짜릿할 정도로 시원하다. 입장료는 2천 원이 있긴 한데 2천 원 짜리 '서천사랑 상품권'으로 돌려주니 사실 공짜나 다름없다. 상품권은 근처 하나로마트나 음식점에 가면 현금처럼 쓸 수 있다.

[주소]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항산단로 34

[전화] 041-956-55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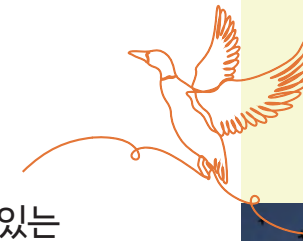
[운영] 09:30~18:00, 월요일 휴무



가창오리의 군무를 직접 볼 수 있는 신성리갈대밭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야간 수색 장면의 배경이 되어 유명해진 신성리 갈대밭이 서천에 있다. 신성리 갈대밭은 오후 늦게 가는 것이 좋다. 저녁노을에 슬며시 붉어진 갈대 사이를 한적하게 걷기 좋다. 그리고 금강하굿둑 철새도래지에 가까이 있어서 겨울 즈음이면 가창오리의 군무도 같이 볼 수 있는 일석이조의 귀한 장소이다. 가창오리들의 군무는 해가 지기 전에 시작이 된다. 군무(群舞)는 무리를 지어 춤을 춘다는 뜻이다. 군무는 장엄함과 신비함에 아름답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엄청난 규모에 겁이 덜컥 나기도 한다. 해가 지기 전 시작된 군무는 해가 지고 나면 이내 끝나버리니 시간을 잘 맞추어야 탐조가 가능하다.

[주소]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신성로 500





해송의 품에서 쉼 희리산해송자연휴양림

휴양림 어디를 가든 하늘만큼 솟아오른 아름답디 해송이 지천이다. 해송 품에 꼭 안긴 듯 몸속까지 편안해진다. 숲길을 따라 조금만 올라가면 희리산 정상이 나온다. 희리산 정상은 약 330m 정도로 그리 높지 않아 트레킹을 즐기기에 아이들도 부담 없다. 정상(문수봉)에 올라서면 서천 시내는 물론 서해까지 시원하게 펼쳐진다. 희리산이라는 이름은 주민들이 자주 안개가 끼고 흐릿하게 보인다고 해서 ‘흐릿산’으로 불렀던 것에서 유래되었다. 여기에 산 대부분의 나무가 바다 근처에서 자라는 소나무인 ‘해송’이 많아 ‘희리산 해송’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주소] 충남 서천군 중천면 희리산길 206 [전화] 041-953-2230 [운영] 09:00~18:00, 화요일 휴무



단아한 고택의 아름다움 서천 이하복 고택 전시관

1870년대에 지어진 전통 농가로, 8만여 평의 땅을 팔아 중학교를 설립 운영하며 서천지역의 교육에 공헌하였던 ‘청암 이하복 선생’이 살았던 집이다. 당시 지주의 가옥은 기와지붕에 방이 수십 칸이었던 것에 비해 이하복 고택은 검소하게 초가로 지붕을 올렸으면서도 ‘ㄹ’의 형태를 가지는 독특한 구조를 보여준다. 고택 바로 옆에는 고택 유물을 소장하고, 이하복 선생의 이야기를 담은 전시관이 함께 있다. 시골 마을 한 편에 조용히 숨어있는 작은 전시관이지만, 다양한 유물과 증강현실을 활용한 해설 덕분에 서천 여행에 숨겨진 보물 같은 여행 명소가 되고 있다. 

[주소] 충남 서천군 기산면 신산리 120 [전화] 041-951-4741 [운영] 10:00~17:00, 월요일 휴무



여행작가
허준성은?

한국여행작가협회 회원 / 저자 허준성은 10년째 캠핑카를 끌고 전국을 누비며 여행을 하다가 제주도로 이주한 4년차 이주민 / 국내외 여행 정보를 공유하고자 잡지 기고와 단행본 작업을 이어 가고 있다. 저서로는 『프렌즈 제주』(2023), 『대한민국 드라이브 가이드』(2022), 『대한민국 자동차 캠핑 가이드』(2022) 등이 있다.